

#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과 특성\*

이 승 호\*\*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고령자의 노동궤적을 유형화하였다. 안정적인 노동궤적에 속하는 유형에서는 남성, 유배우자, 고학력자 비중이 높았고, 가족 구조의 변화가 적었다. 불안정한 노동궤적을 경험한 고령자들은 노동소득이 상실된 기간이 관측되었고, 그 외의 기간에도 충분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노동궤적의 유형화 결과는 한국 사회에 전통적인 은퇴 외에도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며, 어떤 유형의 고령자들이 소득 단절 및 저소득으로 인해 빈곤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지 보여준다.

## 1. 머리말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인구사회적 특성, 일자리 특성 등을 비교한다. 고령자의 노동궤적을 구분한 기존 연구들은 고령자를 하나의 균일한 집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이질적인 하위집단의 특성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연령별 노동시장 지위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 개인 단위 분석결과를 가구 단위 변화와 연결하여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 글은 고령시기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집중된 50대와 60대의 시기에 주목한다. 50대는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50대의 노동궤적 유형화를 통해서 주된 일자리의 차이, 퇴직 시점의 차이가 어떤 특성의 고령자들에게서 주로 관측되는지 확인한다. 60대는 생계유지를 위한 주요 소득원이 노동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비노동 소득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60대의 노동궤적 유형화로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

\* 이 글은 이승호·이원진·김수영(2020), 『고령 노동과 빈곤』 중 제3장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leesh99@kli.re.kr).

하는 집단과 은퇴 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집단 간 특성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sup>1)</sup>

## II. 분석자료와 방법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50대와 60대 고령자이다. 그런데 특정 10년 동안의 패널자료만으로는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조사 4차(2001년)~22차(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1~3차 자료는 조사 초기에 표본 손실이 컸다는 점과, 외환위기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는 해당 기간에 50~59세 또는 60~69세의 10년 동안 조사에 모두 응답한 개인들을 포함하였다. 개인별로는 50대 또는 60대의 10년간 정보만 포함되지만, 분석자료 기준으로는 더 많은 차수의 조사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대상의 연령별 코호트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가장

<표 1> 분석자료의 구성

연령 차수	50/60세	51/61세	52/62세	53/63세	54/64세	55/65세	56/66세	57/67세	58/68세	59/69세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자료: 저자 작성.

1) 이 글은 고령노동과 빈곤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노동계적 유형별 소득 빈곤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본지 이번 호에 함께 게재된 이원진(2021), 「고령자의 노동계적 소득, 빈곤의 관계」를 참고하기 바란다.

젊은 코호트는 2010년(13차)에 50세/60세였고, 가장 나이든 코호트는 2001년(4차)에 50세/60세였다. 연령별 자료는 음영 표시된 조사 차수로 구성되었고, 대각선이 각각의 출생 코호트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50대 고령자 1,419명, 60대 고령자 1,117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모든 분석에는 개인별 최종 연령(59세 또는 69세) 시점의 2009년 통합표본 중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노동궤적 유형화 방법은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배열은 어떤 상태나 사건이 순서를 가지고 결합한 것을 말하며, 이 연구에서는 50대와 60대 각 연령 범위에서 개인이 경험한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 변화 순서의 결합을 의미한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취업자를 구분하고, 임금근로자 집단은 다시 정규직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로 구분하였다.

개인의 노동궤적 배열을 정의한 후,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된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을 활용하여 배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배열 사이의 거리는 두 배열을 동일하게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cost)을 의미하며, 삽입/삭제(indel)와 대체(substitution)의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측정한다. 삽입/삭제와 대체에 부여하는 비용에 따라 산출되는 거리값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령 노동시장이 분절화되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네 가지 노동시장 지위 사이의 대체비용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상태와 비취업 상태 사이의 대체비용을 가장 높게 부여하고, 취업 상태 내에서의 전환 비용은 내부 노동시장인 정규직 임금근로와 외부 노동시장 사이의 대체비용을 외부 노동시장 내에서의 대체비용보다 높게 설정하였다(표 2 참조). 삽입/삭제 비용을 취업-비취업 간 대체비용의 두 배로 설정하여 주로 대체 방법으로 배열 간 거리가 측정되도록 하였다.<sup>2)</sup>

다음으로, 최적일치법으로 측정한 배열 간 거리값에 기초하여 비슷한 배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고령자의 노동궤적을 유형화한 기존 연구의

<표 2> 노동시장 종사상 지위 구분 및 정의, 대체비용

종사상 지위	정의	최적일치법 적용 시의 대체 비용 설정
(1) 정규직 임금근로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임금근로자이면서 근로자 스스로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비정규직 2, 비임금 2, 비취업 5
(2) 비정규직 임금근로	그 외의 상용직 임금근로자와 임시, 일용직 임금근로자를 포함	정규직 2, 비임금 1, 비취업 5
(3) 비임금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정규직 2, 비정규직 1, 비취업 5
(4) 비취업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 5

자료: 저자 작성.

2) 개별 전환 비용의 차이는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 노동시장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복수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였지만, 부여하는 비용에 따라 유형화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 유형 수의 범위를 설정하였고, 해당 범위 내에서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가 2차 분석을 위한 최소 사례 수를 초과하는 결과를 최종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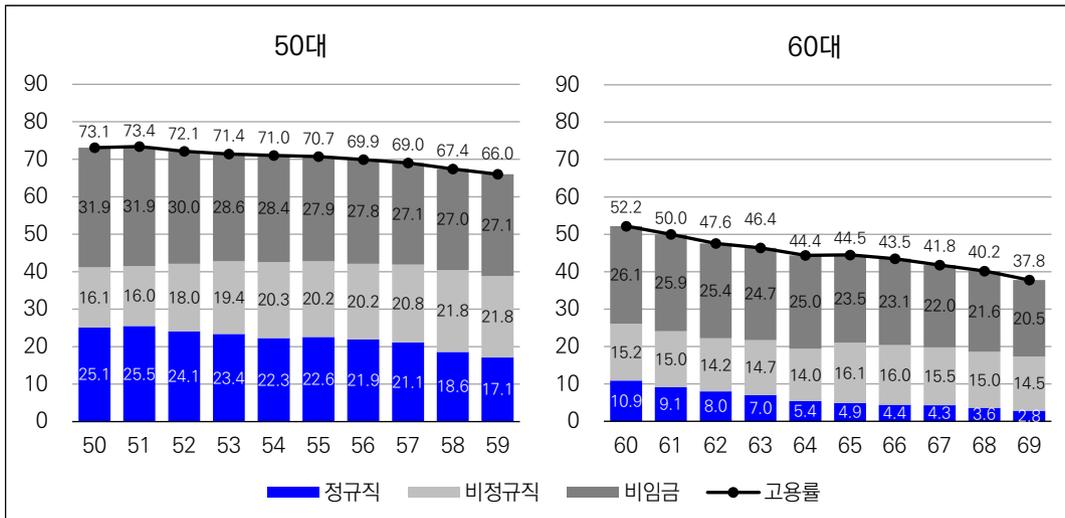
### Ⅲ. 고령자의 노동계약 유형 구분

다음의 [그림 1]에서는 분석대상에 포함된 고령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고용률과 종사상 지위 구성 변화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연령에 따라 포함된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령대별 변화 추이를 각각 살펴보았다. 50대는 연령 증가에 따른 고용률의 감소(-7.1%p) 추이가 관측되었고, 그러한 변화는 주로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 감소(-8.0%p)에 기인하였으며, 비정규직 임금근로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5.7%p)하였다. 60대는 연령에 따른 고용률의 감소(-14.4%p) 추이가 더 급격히 나타났고, 정규직 임금근로의 비중 감소(-8.1%p)가 가장 컸지만, 비임금근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5.6%p)하였다.

[그림 2]에서는 2001~2019년에 50대를 경험한 고령자의 노동계적을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유형별 그림은 각 연령별 해당 고령자들의 4가지 노동시장 지위 분포를 보여준다. 예컨대, 정규직 유지형(A1)의 고령자 대부분은 50세 시점에 정규직 임금근로를 경험하

[그림 1] 50대, 60대 고령자의 고용률과 종사상 지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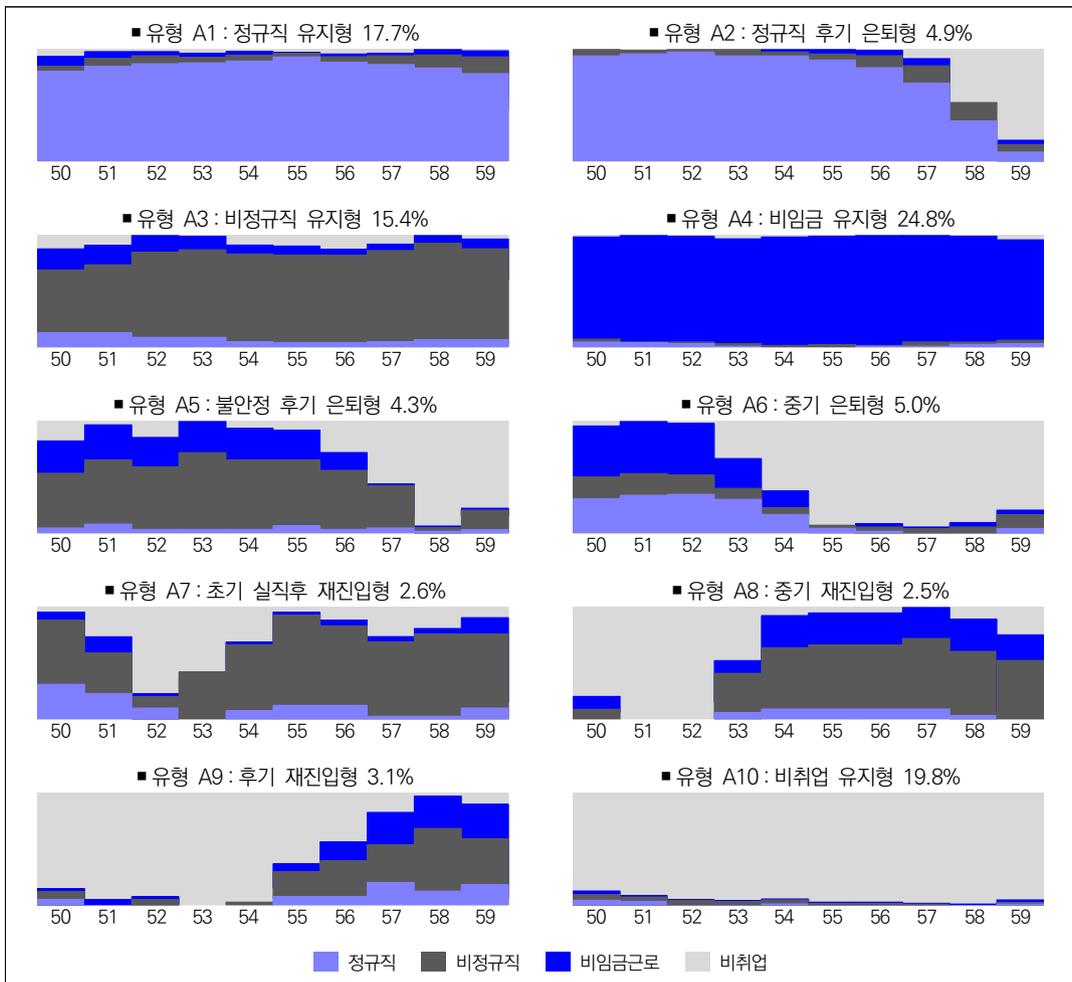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였다. 50대 고령자 노동궤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50대 초반의 종사상 지위를 50대 기간 내내 유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10가지 유형 중에서 고령자가 많이 속한 상위 4개 유형은 모두 50대 초반의 정규직 임금근로(A1), 비정규직 임금근로(A3), 비임금근로(A4), 비취업(A10) 등의 지위가 대체로 50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전체 고령자 중에서 정년까지 정규직 임금근로를 유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50대 시기에 특정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일자리 특성에 따라 상이한 소득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정규직 임금근로를 유지한 고령자는 연공적 임금체계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점차 증가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근로를 경험한 고령자는 다수의 저임금 일자리를 거치면서 임금 감소를 경험하는

[그림 2] 50대 고령자의 노동궤적 유형별 종사상 지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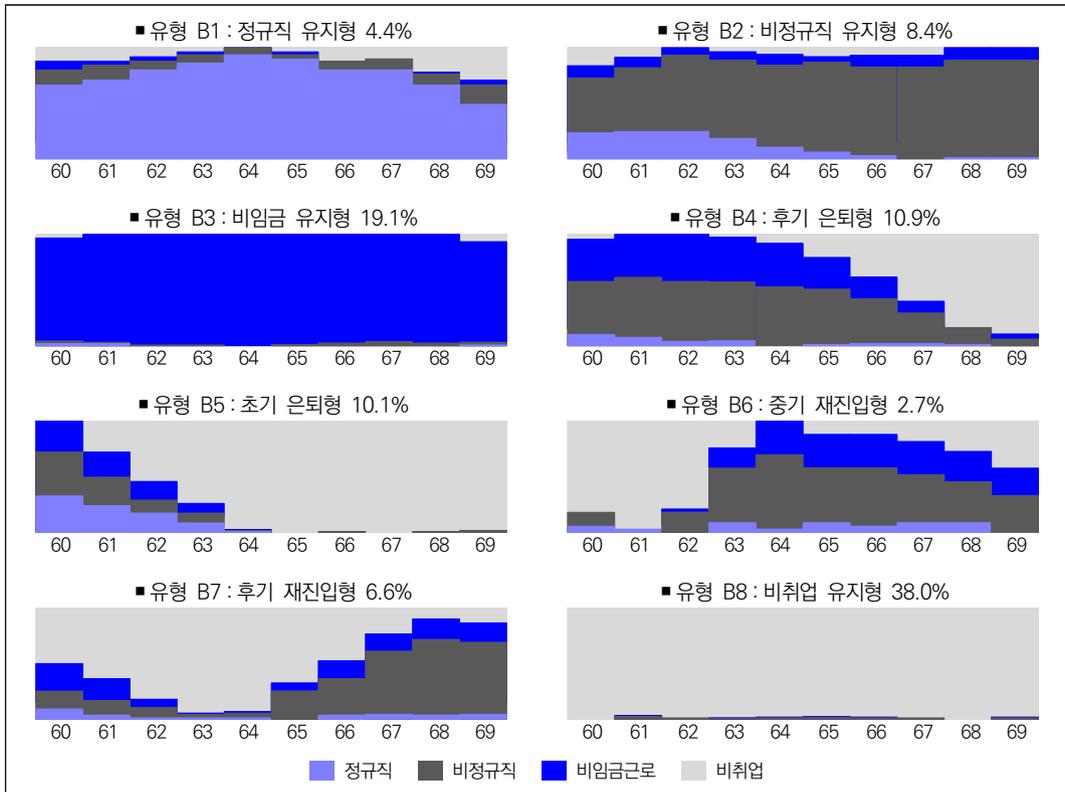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지위가 안정적이지만, 소득수준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둘째, 주된 일자리를 정년까지 유지하다가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에 맞춰서 은퇴하는 경로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은퇴경로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0대 후반에 정규직이나(A2) 비정규직·비임금근로(A5)에서 은퇴하는 경로들이 구분되었고, 조금 더 이른 50대 중반에 은퇴(A6)하는 유형도 있었다. 일부 고령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A7, A8, A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6개 유형은 전체 분석대상의 22.4%를 차지하는데, 이는 50대 고령자의 상당수가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가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연 단위로 측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로 불안정한 노동궤적을 경험하는 집단은 더 많을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 이전의 실직 기간은 소득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50대 고령자의 빈곤 위험은 불안정한 노동궤적을 경험한 집단에서 더 많이 관측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3]에서는 2001~2019년에 60대를 경험한 고령자의 노동궤적을 8가지로 유형화한 결과를

[그림 3] 60대 고령자의 노동궤적 유형별 종사상 지위 변화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보고하였다. 60대 고령자의 노동궤적은 50대 고령자에 비해 비취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의 비중(B8)이 매우 높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고령자들은 정규직 임금근로(B1), 비정규직 임금근로(B2), 비임금근로(B3)의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후반까지 취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 3개 유형의 비중은 전체의 31.9%에 달했다. 이러한 유형의 규모는 한국에서 공적연금제도가 서구와 달리 고령자의 은퇴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60대 고령자의 노동궤적에서도 다양한 은퇴경로들이 확인되었다. 60대 이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유형은 이탈 시점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60대 초반의 이탈경로(B5)는 노령연금의 수급과 60대 중반 이후의 이탈경로(B4)는 기초연금의 수급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대로, 60대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로들(B6, B7)도 관측되었다. 재진입한 사례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임금근로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집단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

#### IV. 고령자의 노동궤적 유형별 특성

다음의 <표 3>에서는 50대와 60대 고령자의 노동궤적 유형별로 성, 교육수준 분포를 정리하였다. 50대에서는 노동시장 참여가 안정적인 유형일수록 남성 고령자의 비중이 높았고, 여성 고령자의 비중은 비취업 기간이 긴 유형일수록 높았다. 예컨대, 정규직 유지형(A1)에서는 77.0%가 남성이었지만, 비취업 유지형(A10)에서는 여성 비중이 87.4%였다. 교육수준의 분포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안정적인 노동궤적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비중이 높았고, 그렇지 않은 노동궤적에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 비중이 높았다. 흥미로운 결과로 50대 초 중반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유형(A7, A8)의 학력수준이 다른 불안정 노동궤적 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고령시기 노동시장 재진입에 있어서 개인의 인적자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60대 고령자의 성별 분포에서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정규직 유지형(B1)의 남성 비중은 82.2%로 50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 고령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노동궤적은 후기 재진입형(B7)과 비취업 유지형(B8)에 그쳤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정규직 유지형(B1)과 초기 은퇴형(B5)의 학력수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함된 결과이다. 비정규직이나 비임금근로를 지속한 유형(B2, B3)에서는 교육수준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60대에서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유형(B6)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표 3〉 50대, 60대 고령자의 노동궤적 유형별 개인 특성

(단위: %)

50대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성	남성	77.0	67.4	53.7	62.8	35.0	27.3	45.1	27.5	18.5	12.6
	여성	23.0	32.7	46.3	37.2	65.0	72.7	54.9	72.5	81.6	87.4
학력	초등학교	11.0	8.3	27.3	21.5	27.4	23.6	21.6	17.1	24.0	23.1
	중학교	17.0	17.3	31.4	23.9	32.7	29.6	31.2	19.2	24.1	29.4
	고등학교	37.4	47.8	35.0	39.0	31.2	35.1	43.9	53.8	24.0	37.7
	대학 이상	34.6	26.7	6.3	15.5	8.6	11.7	3.4	9.9	27.9	9.8
60대		B1	B2	B3	B4	B5	B6	B7	B8		
성	남성	82.2	59.3	63.4	54.8	68.8	56.1	43.2	25.4		
	여성	17.8	40.7	36.6	45.2	31.2	43.9	56.8	74.6		
학력	초등학교	28.5	47.1	47.4	50.5	36.9	43.8	55.0	44.9		
	중학교	21.4	19.7	24.0	14.7	25.3	3.5	16.7	21.3		
	고등학교	36.7	29.1	22.6	25.6	18.5	38.8	22.9	23.3		
	대학 이상	13.4	4.1	6.0	9.2	19.4	13.9	5.4	10.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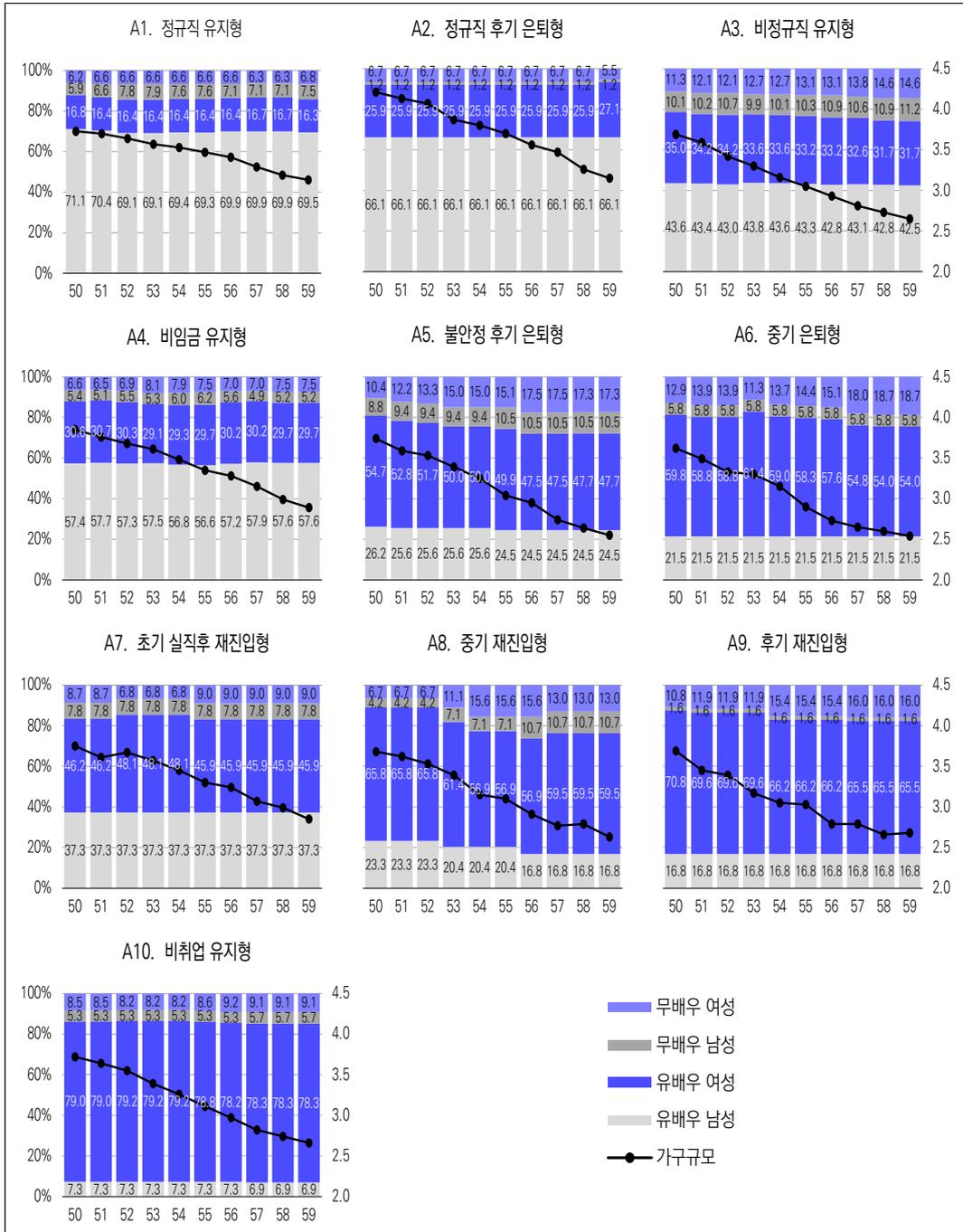
[그림 4]와 [그림 5]에서는 50대 고령자와 60대 고령자의 노동궤적 유형별 가구 특성 변화를 정리하였다. 노동궤적과 가구 특성 변화는 50대와 60대에서 비슷한 양상이 관측되었다. 먼저, 노동시장의 지위가 안정적인 유형(50대 A1, A2, A4/60대 B1, B3)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의 비중이 높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비중이 작았다. 해당 기간에 가족구조의 변화도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반면 실직이나 노동시장 이행을 경험한 유형들에서는 노동시장 지위가 변화한 시점에 가구 특성의 변화가 같이 관측되었다. 예컨대, 50대의 중기 은퇴형(A6)에서는 노동시장의 이탈 시점에 가구 규모가 감소하였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유형(A8, A9)에서는 무배우 여성의 비중 변화가 두드러졌다. 60대의 경우, 중기 재진입형(B6)에서 노동시장의 재진입 시점에 무배우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초기 은퇴형(B5)에서는 무배우 여성과 무배우 남성의 비중이 같이 증가하였다. 이 분석만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족구조나 가구 규모 변화가 고령자의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그림 6], [그림 7]은 50대와 60대 고령자의 노동궤적 유형별 노동소득과 근로시간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노동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고,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의미한다.

50대의 경우, 정규직 유지형(A1)은 대략 300만 원 전후의 노동소득과 주 43~45시간의 근로시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비정규직 유지형(A3)은 A1에 비해 근로시간이 71.7% 수준이었지만, 노동소득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비임금 유지형(A4)은 A1에 비해 노동소득이 약 42만 원

[그림 4] 50대 고령자의 노동계약 유형별 가구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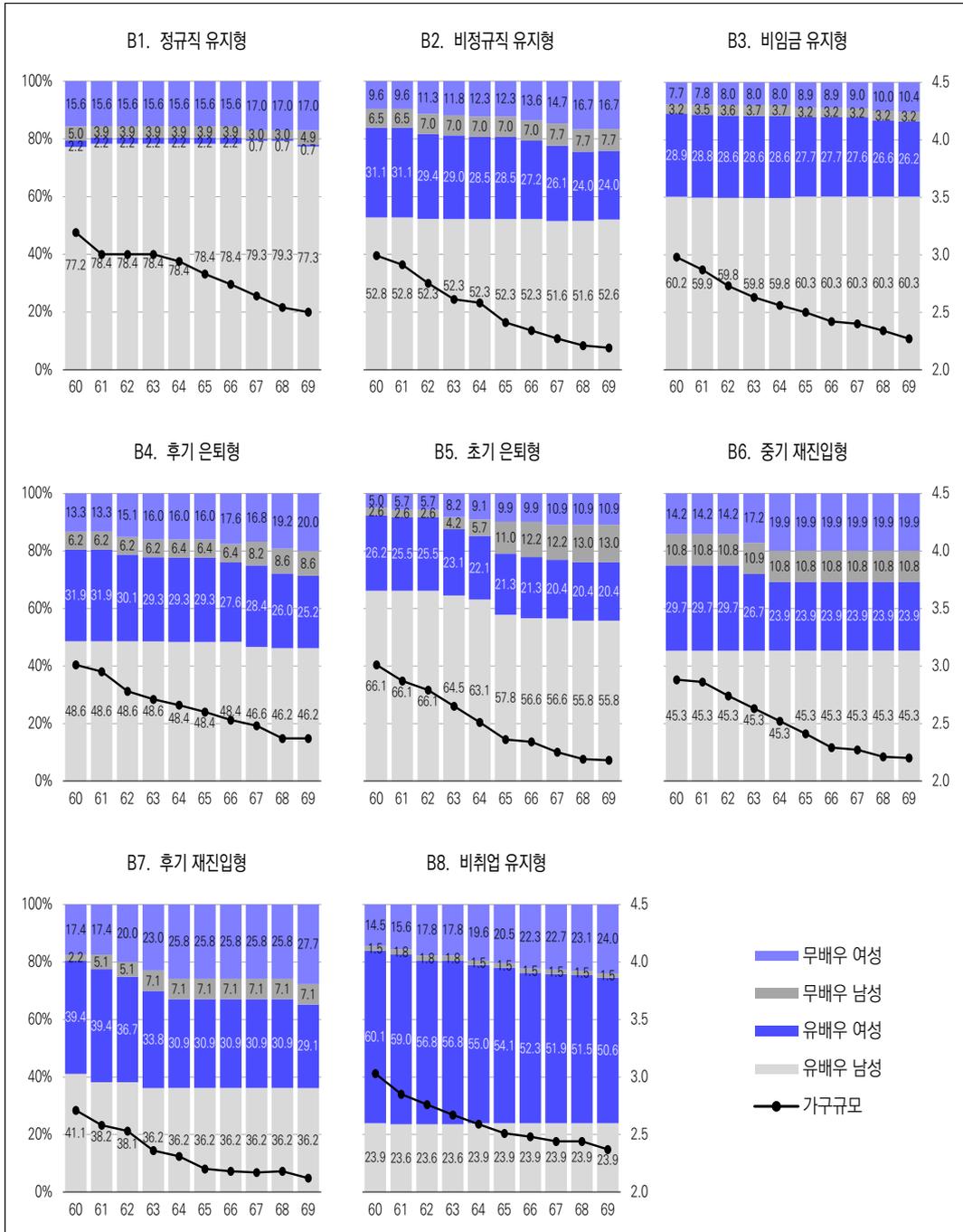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5] 60대 고령자의 노동계약 유형별 가구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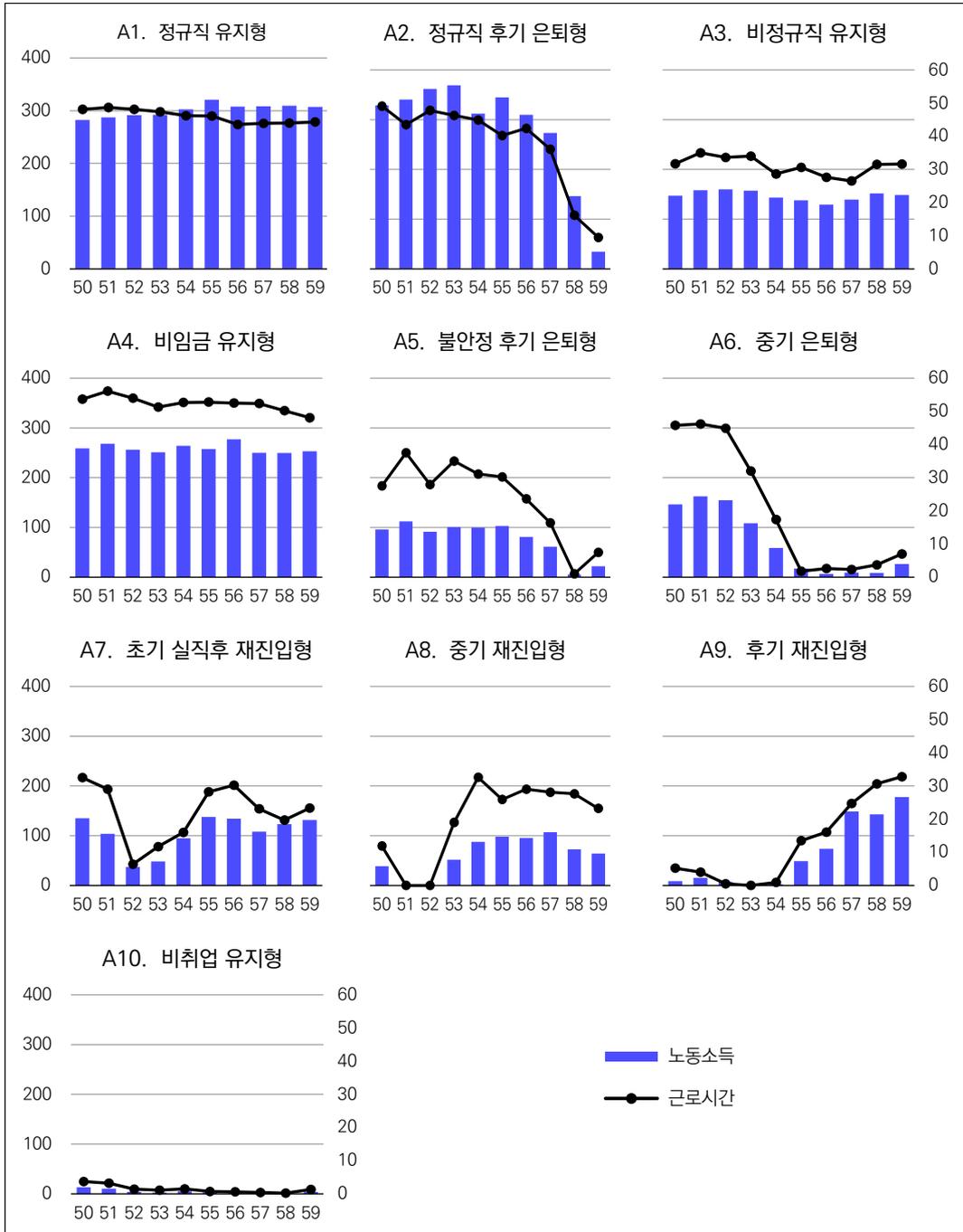
(단위 : %, 명)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6] 50대 고령자의 노동계약 유형별 노동소득과 근로시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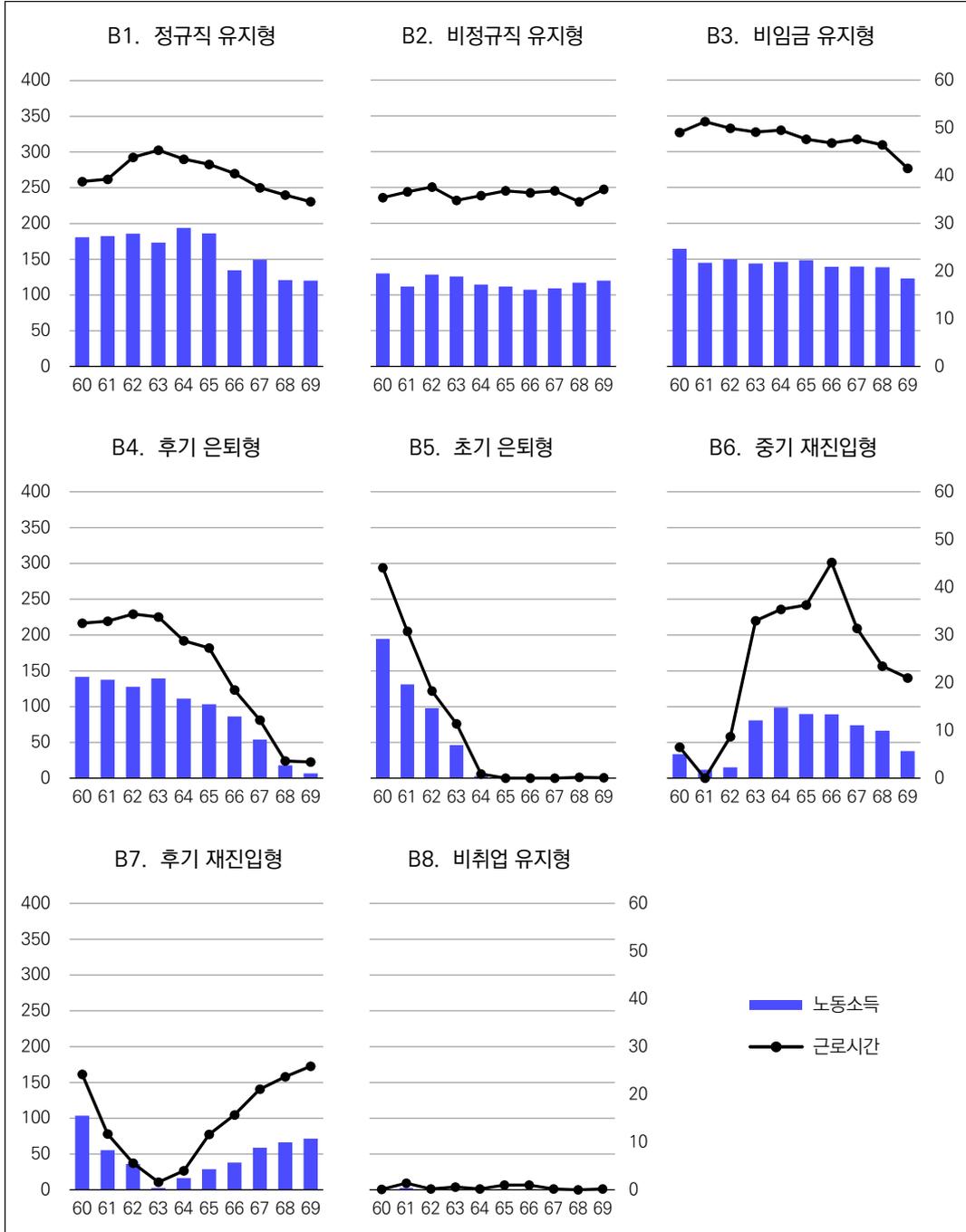
(단위: 만 원/월, 시간/주)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7] 60대 고령자의 노동계약 유형별 노동소득과 근로시간 변화

(단위: 만 원/월, 시간/주)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낮았지만, 근로시간은 9시간 더 길었다. 50대에 불안정한 노동궤적을 경험한 고령자들은 노동소득이 중단되는 기간이 관측되었고, 취업한 기간에도 생계유지에 충분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60대의 노동궤적에서는 정규직 유지형(B1)에서도 노동소득과 근로시간의 감소 추이가 나타났다. 60대에도 정규직 임금근로를 유지하는 집단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중소기업 종사자일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유지형(B2)은 50대의 비정규직 유지형(A3)에 비해 근로시간이 비슷함에도 임금이 80% 수준으로 더 낮았다. 비임금 유지형(B3)은 50대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유지형(B1)에 비해 더 오래 일하면서도 노동소득이 낮은 편이었다. 60대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고령자들(B4, B5)은 노동소득과 근로시간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집단(B6, B7)은 근로시간이 짧지만, 노동소득이 그보다 더 낮은 열악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 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50대와 60대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인구사회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을 비교하였다. 노동궤적 유형화 결과는 한국 사회에 전통적인 은퇴경로 외에도 다양한 경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정년의 추가 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법정 최소 정년인 60세까지 정규직을 유지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지 않다. 이미 50대 초반 시점에 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령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정년까지 고용기간을 연장할 유인이 부족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의 정년도 은퇴 시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조건에서 추가적인 정년 연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고용기간 연장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지원하고, 정년 이후의 재고용 제도를 확대하여 노령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줄이는 등의 정책 개선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기간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정년 연장의 혜택에서 제외된 고령자들의 고용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안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이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이후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직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고령자들의 원활한 이직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록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적 부양이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노후의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저임금의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대와 별도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 적용 연령 상향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KL**

### [참고문헌]

이승호 · 이원진 · 김수영(2020), 『고령 노동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